



한 생을 버리고서라도 탈피하겠다 하고 실천해야

봄이 오니깐 활동하기가 좀 유하시죠? 아주 추울 때보다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봄이 와도 살기에 좀 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진리를 배우는 데 세가지의 어긋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진리에 순응해야 하고, 둘째는 부처님의 뜻을 따라야 하고, 셋째는 시대에 따라야 한다는 얘깁니다. 이 세가지가 어긋날 때에는 부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과 같아서 그거는 불제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왜 이 정신세계의 마음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것을 한번 숙고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인간들은 살아가면서 갖가지로 생활에 얽매이죠. 그러나 만물에 대해서 한번 거론해봅시다. 모든 생물들, 동물이나 식물이나, 어떤 새들이든, 어떤 곤충이든, 개든 고양이든 모두가 자기 분수를 안다 이겁니다. 말이나 소나 개나 돼지나, 돼지는 자기가 돼지인 줄 알기 때문에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새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자기 분수를 알기 때문에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얘깁니다. 오직 한 군데에다 몰두하고 말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바를 틀림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간이 주어지면 개는 개로서 사는 방식을 허탈하게 보내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네 인간처럼 아주 악순환을 겪고 얽히고 설킨 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집착과 관습에 의해서 그냥 얽매이고 살지는 않죠.

어떤 큰스님이라든가 어떠한 사람들이, 또는 사대 선지식들이, 또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꼬달려서 아예 한 발짝도 떼놓지 못하죠. 부처님께서도 '말에 꼬달리지 말라. 뜻을 보라. 뜻에 따라야지 말에 따르면 안 되느니라. 그 말을 들어서 뜻을 가지고 행하라.' 이런 말씀 하셨죠. 사람은 그렇게 얽매이고 지내는데 동물들이나 식물들은 아주 편리하게 얽매이지 않고 산다 이겁니다. 그것은 어떠한 점 때문이나 하면은 자기 분수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은 자기 분수를 지키지 못하고 분수를 모르고 남의 말만 듣고 얽매이고, 집착에, 욕심에 분수를 모르고 꼬달려서 그러한 일들이 허다히 많습니다. 아니, 모두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자기 다리가 긴지 짧은지 그걸

모르다면은 개천을 건너 뛰다 하더라도 아마 개천 중간에 빠질 겁니다. 그러나 자기 다리가 짧은 줄을 안다면 뛰지를 않겠죠. 넓은 데는 뛰지 않고 자기가 뛸 수 있는 만큼만 뛰겠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안 그래요. 개천이 넓으니 좁으니 막론해놓고 그냥 넘어갈 생각을 하거든요.

이 공부하는 자체도 그래요. 우리가 분수를 안다면 나부터 발견하려고 애를 써야지, 말을 많이 들어서 첨단을 넘어하려고 기어오르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은, 그건 자기 자리도 모르는 그런 위치가 되죠. 자기 내면의 자기가 철저하게 그렇게 해나감으로써 스스로 자기 자생중생들은 제도가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해

도,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는 모양 같습니다. '어떡하면 빨리빨리 알아질까? 어떡하면 빨리빨리 깨달을까?' 하지만은 내 자생중생들부터 한마음으로 돌아갈 줄 알아야 내가 한 마음으로 돌아갈 줄 알게 되고, 자생중생들이 튼튼하고 건강해야 내가 건강하고, 또한 자생중생들이 돌아나게 돌아갈 줄 알아야 내가 돌아나게 돌아갈 줄 알고, 그러니만큼 모든 것은 자생중생들이 남이 아니라 바로 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를 제도를 해야 내가 제도를 받고, 자생중생들이 제도를 받아야 내가 깨달음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겁니다.

하물며 물에서 사는 생물들도 각종의 차원을 가지고 각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

나갑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모두가 주고받고 이렇게 서로가 공식(共食)하면서 공생(共生)으로서 공용(共用)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 동시에 자기가 놓고 있는 그 집이 엄연히 있어서 테두리를 질서정연하게 찾고 또 질서정연하게 살고 있습니다. 미꾸라지는 미꾸라지 노는 데서 놓고, 개는 개대로 게 노는 데서 놓고, 각계각층이 자기 노는 데서 논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방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 집 찾아가는다고 허덕이다가 죽고 하는 걸 보면, 난 그 생각이 가끔 나오. 해방이 되고 나서 차 대가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오다가 다 그냥 떨어져서 죽고, 머리통이 깨져서 죽고, 다리가 부러져서 걸질 못하고 쓰러지고 이러



그림 · 최주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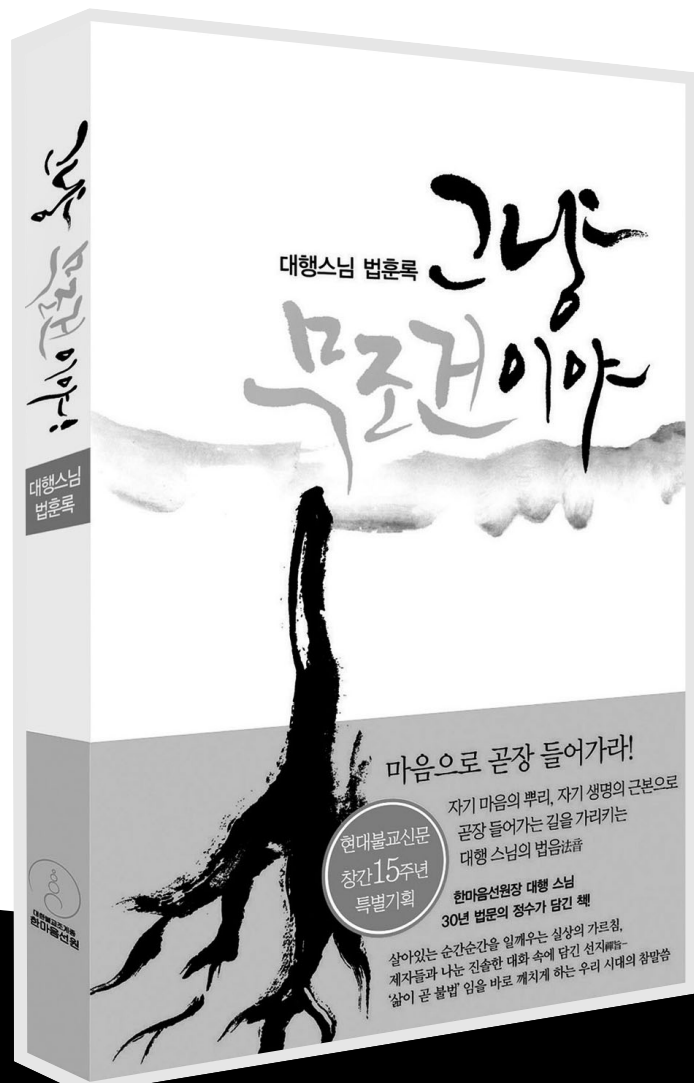
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나느냐 하면은, 고기를 방생한다고 풀 어냈을 때 제 집 찾아가는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과 같았어요. 얼마나 치욕입니까, 그게? 자기네들은 무심코 그냥 잡아다가 또 갖다가 넣고 또 잡아서 가둬놨다가 또 풀어놓고 이러는데, 그거는 오히려 자기 인생을 자기가 그렇게 망친 거와 같습니다.

어떠한 것이 진짜 방생인지도 모르면서, 실천도 못하면서 그림자처럼 왔다 갔다 하고 남의 말만 듣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갈대와 같이 쓸리는 마음은 부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입니다.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제자리를 찾아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지 모릅니다. 제자리를 찾아서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면은 그냥 잡아먹히고 그대로 추방을 당하고 이렇게 하니까 말합니다. 그런 이 아래, 하의 동물이나 아래 하의 생명들이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자기 자리를 자기 알고 자기 분수를 자기가 알고, 자기가 새면 새라는 걸 알고 미꾸라지는 자기가 미꾸라지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죽는 데 대해서 조금도 애타고 고(苦)라고 생각을 안 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化)해서 진화가 되고, 진화해서 인간으로까지 이렇게 올 수 있는 길이 타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대로 우리 인간이 살아나가는 걸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은 애고(哀苦)가 많으니, 고(苦)가 많으니 병고가 많으니, 온통 야단들인데 난 병고다 애고다 고통이다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그 고통을 받아보신 분들이 그 낙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고통을 모르면 남의 고통도 모르고, 또 사람이 발전을 해서 진화돼서 창조력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고통과 즐거움은 동시에 평등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항상 재료로 알리고 그러죠. 여러분이 아무리 빠져나가려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이치가 있다는 사실을 실감나게 알아야 될 일인데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허허, 그걸 말을 어떻게 해야 여러분한테 잘 비벼서, 비뚤음을 해서 맛있게 해서 먹게끔 하고 나중엔 소화를 잘 시키고, 나중에는 대변을 잘 뉘서 속이 시원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점에서 꿈이 생각해도 때로는 부실할 때가 많습니다. 표현이 여러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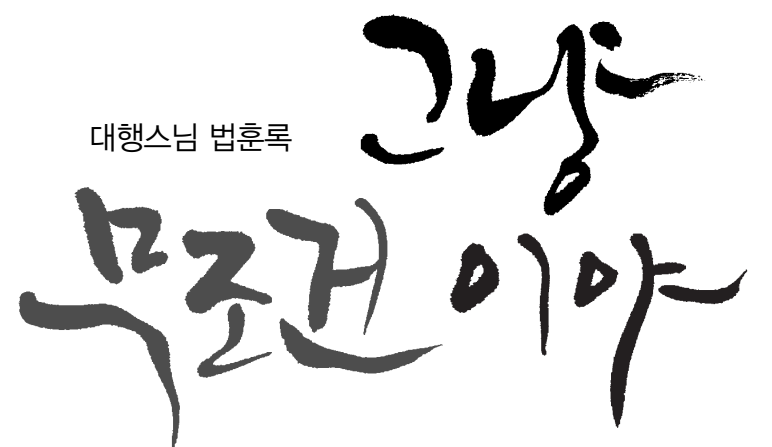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삼!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